

설교자 회의(20240223)

이기영 목사

1. 본문: 출애굽기 12:21~28절

제목: 첫 유월절

대지 1. 피를 바를 것을 요구

2. 자손이 지킬 영원한 규례

한줄 요약 “유월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피를 바를 것과 영원히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

연구

12:1~20절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유월절 규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12:21~28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행한 연설로 유월절에 관한 규례¹⁾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유월절은 모세가 언급한데로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유월절이 있는 시점은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허락된 방법이 유월절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바로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부수시는 것으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애굽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게 합니다.

애굽에게 ‘장자가 있다’라는 의미 일반적으로 ‘대를 이을 자가 있다는 뜻’으로 그 권력과 힘이 통치가 계속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종묘와 사직을 위해 세자를 두어 그것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주청을 올리는 이유가 종묘와 사직이 영원히 보전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처럼 세자의 유무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장자는 왕과 같은 존재이며, ‘애굽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갈 또 다른 신인데, 그런 신을 죽인다는 것은 애굽이 추앙하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를 바로답게 만들었던 나일강과 많은 식량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 확인시켜주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앙의 도구가 사실을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지를 10가지 재앙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를 통해 두 가지를 고민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찾지 못하여 굳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또 양을 잡아 피를 다 쏟게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박철현 교수는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1) HOW 주석 출애굽기 p. 257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모르시기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유월절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성경과 비슷한 사건은 민수기 21:4-9절에 놋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놋뱀이 없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놋뱀을 반드시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본문에서도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나 그 구원은 오직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임한다.』

바울은 로마서 10: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굳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 유월절과 놋뱀 사건에서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시나산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들을 다시 확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를 것을 요구하셨고, 이 규례를 대대로 지킬 것 또한 요구하셨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구원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삶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동떨어져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믿지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 본문: 출애굽기 20:1~17절

제목: 십계명을 주신 이유

대지 1. 종이 아니라 자유인

2. 지켜야 할 명령

한줄 요약 “십계명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에게 주어졌고, 자유인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명령인 것이다.”

연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십계명을 받는 자들이 자유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며, 애굽에 종으로 있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변화 시킨 것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을 받은 자들 즉 종이 아니라 자유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있을 때, 이 계명을 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기다리셨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복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주요관심사는 사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십계명은 사실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개인이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²⁾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처럼 십계명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8가지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주시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 할 때, 율법이 가지 말라는 쪽으로 안가는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한 반대편, 즉 적극적인 쪽으로 지키는 것을 십계명 안에 담고 있는 정신이 가지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런 뜻을 헤아려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³⁾

15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28절을 통해 도적질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적극

2) 현대성서주석 출애굽기 P.344~345

3) 박영선 마태복음 강해 3권 P.295

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해 도적질 하지 않는다는 본래의 의미는 ‘도적질하던 손을 변화시켜 남을 돕는 손이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 “법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하여, 강한 자를 제어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강한 자의 무엇을 제어시키나면 강한 자의 포탈과 포악한 행위들을 제어시킴으로써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요, 약한 자를 도우라는 적극적인 내용의 한 표현이다”라고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십계명이 공동체에 주신 것이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철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요구로 이어진다”고 십계명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옴아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이며, 이는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낮추고 자기부인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복된 신분으로 변화 되었다는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마땅히 성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요구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귀한 시간되시길 축복합니다.

3. 본문: 출애굽기 24:1~11절

제목: 언약의 체결 방식과 결과

대지 1. 피 뿌림

2. 식사교제

한줄 요약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은 방식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었고 결과는 하나님과 식탁교제였다”

연구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및 이스라엘 장로 70명 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올라와 멀찍이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오로지 모세만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2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오늘도 여전히 언약을 맺으면서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수동적으로 언약

을 체결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공포하게 하여 백성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으며, 이튿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의식을 진행합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뭔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을 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도하시는 대로 언약 체결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이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수에 맞추어 기둥 열두 개를 세웠으며, 젊은이들에게는 수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모세는 수송아지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받아 그 절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 놓고 절반은 제단위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언약 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이 **‘준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제단 위에 뿌리지 않고 남겨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 피가 언약의 책에 담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이 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확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은 **“상속자를 주며,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후에 동물들을 잡아 찢개고 아브라함이 잠든 후에 타는 횃불이 찢개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하기까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 점은 성취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19장부터 언약의 내용들이 선포되고, **23장** 후반에 이 언약의 중요 포인트는 **23:24절**로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 적극적 율법을 실천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공동체의 살로를 위해 내가 더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내용의 언약적 체결인 것입니다.

박철현교수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세세한 언약 체결식을 치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를 함으로써 드디어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언약을 결혼에 비유**

하자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렀다. 이제 남은 일은 신방을 차리고 그 신방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신방은 성막이다.』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시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루고 함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언약체결 예식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결혼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3:24~2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 존재 자체로도 기쁨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고민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4. 본문: 출애굽기 34:1~9절

제목: 실패의 증거

대지 1. 돌판

2. 하나님의 성품

한줄 요약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실패함으로 새로운 돌 판을 주셨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용서하심 등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됐다”

연구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될 위기를 맞습니다. 언약 파기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몰살’이었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신 분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알기에 부족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개의 돌 판을 다시 준비하여,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다시금 만들라 하시고, 임재하심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돌판이 다시 만들어 짐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4: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와 여호와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

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끊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밋세바를 범했고, 인구조사를 통해 수만 명의 죽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결국 두 나라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많은 자들이 그 예수를 전세게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9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3:3절에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선언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이며, 앞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모세가 은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증거면 부정적인 내용이어야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서도 늘 실패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이며, 동일한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실패를 경험 삼아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 때문에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다면 그곳에 역사하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 본문: 출애굽기 40:34~38절

제목: 성막의 완성이 보여주는 것

대지 1. 우리 중에 거할 성소

2. 눈으로 확인 가능한 영광

한줄 요약 “성막이 완성됨으로 보여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연구

박철현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단락은 단지 성막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거하는 상황을 이상적이고 목가적으로 그림으로

써 출애굽기를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마무리해주고 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아름답고 많은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막의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으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박철현 교수의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25: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성막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9:43,45~46절**에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막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뿐이었고 후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70인의 장로**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렇듯 제한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옴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의미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과 계명들을 통해 자신들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을 닦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단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여 속에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신약에서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내광야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먼발치에서 보아 했지만 **3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는 데로 이스라엘이 인도되어 졌고, 광야 생활동안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자신들을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완성은 신약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며,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역할입니다. 성막의 역할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연결하는 장소였다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을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HOW 주석 출애굽기 P.121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보다 복된 소식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오늘 성막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속에 깨닫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